

작품 내용

제 목	새벽의 흔적
내 용	새벽 세 시, 나는 아직 그 문장 앞에 있었다. 명령문으로 글을 끝낼지, 의문문으로 끝낼지, 이 자리에는 이 단어가 맞을지, 이미 타이핑 된 정갈한 선들 위로 끝없는 고민이 이어졌다. 어떻게 써야 내 글이 더 향상될 수 있을까, 어떻게 서술해야 내 마음이 고스란히 담길까. 지우고 다시 쓰기를 몇 번이었는지 이제 세지도 않았다. 서서히 손 댈 곳이 없어져가자 드디어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. 시침과 분침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간은 아무 데도 남지 않는다. 글이 완성되고 나면 남는 건 정돈된 몇 줄뿐이다. 그 선들에는 부피도, 무게도 없었다. 이 문장이 십 분 만에 나왔는지 열흘 걸렸는지, 종이는 말해주지 않는다.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시간을 존중하는 데 이미 익숙하다. 밥을 먹을 때도 재료값보다 비싼 값을 내면서 억울해하지 않는다. 한 끼의 맛에는 재료만으로는 셀 수 없는 요리사의 연륜과 손길, 그곳에 쌓인 시간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. 하지만 왜인지 인터넷 창 너머의 글이나 그림 앞에서는 이 감각이 자꾸 흐려진다. 눈앞의 접시는 그 주인이 보이지만, 모니터 속 픽셀은 주인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자꾸 죄책감을 면제받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. “다 올라와 있는 건데 좀 쓰면 어때.” 이 한 줄이 사실은 누군가의 며칠, 몇 달, 어쩌면 그 사람의 새벽들을 0원으로 통째로 가져가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자주 잊는다. 캡처 한 번에 내 손에 들어온 것 같지만, 창작물은 단 한 번도 남의 손에 들어간 적 없다. 내가 이렇게 저작권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작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. 학교 동아리에서 작게 잡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였다. 앞표지를 장식할 폰트 하나를 고르는데 유독 눈에 밝히는 폰트 하나가 있었다. 내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흘림체였다. 가격은 고작 900원이었다. 구천 원도, 구만 원도 아닌 0 두 개 900원. 껌 한 개 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아까움이 몰려왔다.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폰트명과 ‘무료 다운로드’를 검색할까, 하는 유혹이 스쳤다. 그러다 문득 모니터 화면에 반사된 내 얼굴이 보였다. 잡지에 실을 글을 쓰느라 지친 켈한 얼굴. 그때 정신이 들었다. 내가 쓴 문장 하나는 그토록 소중해서 누가 토씨 하나만 바뀌도 짜증낼 거면서, 왜 이 폰트를 만든 디자이너의 수고는 보이지 않았을까. 무료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는 순간 잡지에 실릴 글 또한 아무리 주워가도 할 말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는데. 이 껌은 선 하나를 긋기 위해 나처럼 지새웠을 디자이너의 새벽들이 비로소 입체적으로 다가왔다. 나는 조용히 결제 버튼을 눌렀다. 폰에 올리는 결제되었다는 페이지 알림과 함께 묘한 해방감과 내 잡지에 대한 애정이 들었다. 내가 지불한 것은 폰트의 사용권뿐 아니라 디자이너의 새벽에 대한 정당한 인사이자 내 창작물이 당당해질 자격이었

다.

저작권을 지킨다는 게 거창한 법 조항을 외우는 일은 아닌 것 같다. 오히려 아주 작은 상상력에 가깝다.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 작곡가가 건반을 몇 번이나 두드렸을지, 이 한 줄을 쓰려고 누군가 얼마나 오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을지, 딱 한 번만 상상해보는 것. 그것만으로 꽤 많은 게 달라진다.

나에게 저작권은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이름표를 붙여두는 일이다. 옷에 붙은 태그처럼, “이건 내가 만들었다”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게 지켜주는 끈이다. 그 끈이 있어서 나는 오늘 새벽에도 그 한 글자를 붙잡고 있을 수 있다.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글이 내 이름으로 남는다는 걸 알아서. 지금 이 순간도 자기만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 모든 이들의 시간과 이름표가 헛되지 않음을 믿는다.